

김용현 구속·대통령실 압수수색...내란 수사 급물살

검찰, 김 전 장관 첫 소환 조사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도 경찰, 국회경비대 등 압수수색 사상 첫 대통령 체포·소환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등 내란 사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본격화했다.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중요임무중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신용해 고정부장은 자정께 김 전 장관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로, 그가 포고령 초안을 써서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삭제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해 이틀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특수본은 또 이날 오후 2시께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탑승한 육군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직접 국회로 병력을 보낸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국회 통제 작전에 계엄군을 투입한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광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대통령실 등 4개소에 경찰 60여명을 투입했다. 특수본은 경찰청 안보수사단을 중심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등 총 1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

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균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서대문구 경찰청에 있는 경찰청

장실과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서울청장실, 공공안전차장실, 경비부·과장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등 수사 기관의 내란 사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헌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질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헌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없는 긴급체포는 대통령경호처와의 갈등이 예견되는 등 수사기관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식 소환조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구속된 김 전 장관 및 관련자 조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탈 중인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등 정치 일정과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 이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 변론 경험이 있는 법조인, 고검장 출신 법조인 위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한강 작가 "문학, 생명 파괴 모든 행위 반대"

1면서 계속

엘렌 맛소는 소년이 온다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거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작가는 말한다. 소년은 "나를 왜 죽였나"고 묻는다"면서 "우리는 이를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엘렌 맛손은 영어로 "친애하는(dear) 한강"이라고 부르며 "국왕 페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청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한 작가가 국왕으로부터 증서와 메달을

받는 순간, 객석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축하와 경의를 표했다.

시상식 후 수상자들은 스톡홀름 시청 내에서 '블루홀'에서 열린 만찬에서 소감을 밝혔다.

한강 작가는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면서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언어, 이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인을 품게 된다"고 영어로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이어 12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밤' 행사가 진행된다.

국수본, '내란 공범 혐의' 조지호·김봉식 긴급체포

초유 경찰 '1·2인자' 동시 체포 수사신뢰·김용현 구속 '고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조청장과 김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시민사회계로부터 고발당했다. 특수단은 전날 두 수뇌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청장은 오후 4시부터 약 11시40여분 만에, 김서울청장은 약 10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이들은 귀가하지 못하고 긴급체포로 구금됐다. 경찰이 조지호 수뇌부를 긴급체포한 가장 큰 이유는 내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청장과 김서울청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놓고 '셀프·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내란죄' 수사를 두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면서 수뇌부가 연루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인 만큼 수뇌부 체포를 통해 수사 신뢰도 제고에 나선 셈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 및 구속,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피의자 신분 조사 등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까지 적시해 조만간 윤 대통령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 관측까지 나왔다.

반면 경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색은 먼저 했으나 신병 확보는 검찰에 밀렸다. 다른 수사 대상에 대해서 소환 통보만 했을 뿐 1명을 제외하곤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

조청장과 김서울청장의 경우도 휴대 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통신내역을 분석하는 등 '사전자료 확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적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수뇌부 소환 조사 및 긴급체포 결단을 내렸다.

서울·김선욱 기자

“특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김형필 (660319-1*****) 2022년 11월 16일 사망.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남길 22-12)의 법정상속인 박병덕은 위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하고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4. 12. 11. 10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24년 12월 9일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바, 위망인에 대한 채권자나 유증을 받으신 분은 이 공고게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 및 수증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한정상속인 : 박병덕
채권신고장소 : 전남 장흥군 부산면 호계남길 22-12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10월 25일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일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청정자연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남길 78 (비아동)
청산인 박이천

공 고 문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발전사업의 명칭 및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발전소명	법인명	대표자
밝은고흥태양광1호	밝은고흥태양광1호(주)	이 용
밝은고흥태양광2호	밝은고흥태양광2호(주)	유대원
밝은고흥태양광3호	밝은고흥태양광3호(주)	김봉주

2. 위 치 : (밝은고흥1호)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2061-7 일원 (밝은고흥2호)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 222-3 일원 (밝은고흥3호) 고흥군 대서면 송림리 638-6 일원
3. 면 적 : 약 48.7만㎡(약 14.7만평)
(1호 : 약 19.6만㎡, 2호 : 약 18.5만㎡, 3호 : 약 10.6만㎡)
4. 주요내용 가. 설비용량 : 100MW급 (1호 : 40MW급, 2호 : 40MW급, 3호 : 20MW급)
나. 사업개시 예정일 : 2028년 02월
다. 사업 운영 기간 : 2028년 02월 ~ 2049년 08월 (사업면적, 발전설비 용량 및 사업 운영 기간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의견 제출
1. 의견제출 기간 : 2024. 12. 12. ~ 2024. 12. 20 (7일간)
2. 의견제출 방법 : 밝은고흥태양광1호(주), 밝은고흥태양광2호(주), 밝은고흥태양광3호(주) 서면 또는 전자 메일 제출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로구 중로1길 50, 9층
나. 전자메일 : britegoheung@gmail.com
다. 대표번호 : 02-6235-8390

목포시 공고 제2024-1729호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재열·공고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부서) 협의의견 등 반영에 따른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알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12.

목 포 시 장

1. 주요내용
가. 공 고 명 : 2030년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재열·공고
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 생략
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
2. 관계도서 : 게재 생략(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비치)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4. 12. 12. ~ 2024. 12. 26.(14일간)
나.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4. 의견제출
○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본 공고(안)는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 ☎ 061-270-8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直通 (062)519-0710

全南日報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4. 12. 11. 10465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최관근(670307-1*****)
최후주소 목포시 신흥로 113, 207동 1102호 (옥암동, 제일2차하이빌아파트)
위 망 최관근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12월 12일
공 고 인 : 이현화
한정승인 수리일 : 2024년 12월 10일
공고기간 : 2024. 12. 12. ~ 2025. 2. 11.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4. 12. 11. 331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조중선(690408-1*****)
최후주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위 망 조중선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4년 12월 12일
공 고 인 : 김순옥
한정승인 수리일 : 2024년 12월 10일
공고기간 : 2024. 12. 12. ~ 2025. 2. 11.